

#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든든'

### 광양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직자 취업률 78.7%로 도내 1위

#### 조리사·ITQ정보기술 등 맞춤형 일자리 발굴 활발

광양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난을 해결하는데 독특한 역할을 수행해 주목받고 있다.

14일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따르면 일하기센터는 지난해 구인업체 요구에 맞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남 도내 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 구직자(667명) 대비 취업률(525명, 78.7%) 1위를 차지했다.

육아와 가족돌봄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과 직업교육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전문기관이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단체급식조리사, ITQ정보기술, 결혼이민여성 피부미용사 등이다.

단체급식조리사 과정은 교육생 20명 전원이 수료해 1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현재까지 9명이 취업에 성공해 45% 취업률을 올렸다.

ITQ정보기술 과정은 교육생 20명 전원이 수료해 17명이 총 42개의 자격증 취득에 성공해 현재까지 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결혼이민여성 피부미용사 교육 과정에서는 85%가 수료해 전문 직업인으로 나서 능력을 갖췄다.

광양시는 올해도 경력단절여성 80% 이상 취업률 달성을 목표로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220명을 대상으로 22회 동안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적성에 맞는 직업탐색, 진로목표 설정, 자기관리법 등 취업을 위한 기본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미취업 여성들의 자신감을 높여 취업과 연계하고, 취업설계사가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여성을 위한 일자리 발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는 또 경력단절여성 3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정식 고용까지 이뤄지도록 매일

여성인턴제를 시행해 인력채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 1억2000여만원을 채용기업체와 인턴여성에게 지원한다.

광양시는 이 밖에도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의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가사 및 자녀양육부담 완화 사업, 유아 수탁서비스를 제공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종합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희망 여성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고급인력을 지속 양성할 방침이다.

김정중 광양시 사회복지과장은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직업훈련 교육을 통한 취업연계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직접 수혜가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광양제철 '안전 페스티벌' 열고 무재해 다짐

### 권오준 포스코 회장 방문 격려

포스코 권오준 회장이 14일 광양제철소(소장 안동일)를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권 회장은 이날 1제강공장과 4열연공장을 방문해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의 힘과 열정으로 'POSCO the Great'를 실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광희 제강부장은 "저렴하고 고수익 프로세스 구축으로 월드프리미엄 제품 생산 비율을 더욱 높이고, 광양제철소의 경쟁력도 높여겠다"고 답했다.

한편 권오준 회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 앞서 지난 13일 '2016 포스코패밀리 안전 SSS(Self-directed Safety Spread·자기 주도 안전활동) 페스티벌'에 참석해 무재해 제철소 실현과 포스코 전 그룹사의 안전수준 제고를 강조했다.

안전 페스티벌 행사는 안전활동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전파, 포스코패밀리 안전대상 시상, 2016 안전 무재해 기원 영상 시청, 2016 포스코패밀리 안전보건방재 실행전략 공유, 안전다짐 서약 순으로 진행했다.

안전대상은 지난해 포스코패밀리 안전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직원들이 14일 광양제철소 1제강공장에서 힘찬 도약을 다짐하며 하이팅을 외치고 있다.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우수 활동을 펼친 부서와 회사에게 주는 상으로 ▲포항 선제부 ▲광양 에너지부 ▲포스코렌텍 ▲포항 외주파트너사 피엔피 ▲광양 외주파트너사 화인이 수상했다.

포스코는 올해 '절실함이 발현된 자기

주도의 안전활동 정적으로 무재해 실현'을 목표로 ▲안전 SSS 활동 내실화 ▲기본의 실천 문화 정착 ▲보건방재 관리수준 향상 ▲그룹사 및 해외생산법인 안전수준 레벨업의 4가지 핵심전략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해남군, 수산물도 최저가격 보장한다

### 농산물 포함 전국 최초... 2020년까지 재원 200억 조성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산물과 수산물의 판매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차액을 지원해 생산원가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최저가격 보장 해주는 자치단체는 있지만, 수산물까지 포함한 자치단체는 해남군이 처음이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가 지난해 말 개정돼 오는 22일부터는 농수산물의 판매가가 생산비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농어업인에게 보전해 주기로 했다.

해남군은 소득보전 재원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나주시와 전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이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생산원가를 보장해 주는 조례를 만들거나 시도한 사례는 있었지만 수산물의 생산원가를 보장해 주는 조례를 만든 것은 전국에서 해남군이 최초다.

생산원가 보장을 수산물까지로 확대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업황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해 소득이 불안정했던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조례는 차액 지급의 근거인 최저가격을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도매시장 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요 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차액 지원대상은 해남군에서 3년 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으로, 구체적 지원 대상과 품목 지원기준 등은 시행 규칙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14년 집행부가 제출한 군수 발의안, 지난해 4월 군민 1382명이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을 해남군의회가 지난해 12월 병합 심의하고 의결해 최종 확정됐다.

박철환 해남군수는 "선심성으로 예산을 나눠주자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 농어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의 가장 큰 목적"이라며 "농어업인들이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게 됨에 따라 삶의 질과 행복지수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해남 도솔암

### 관광공사 선정 '1월 가볼만한 곳'

해남 땅끝마을 달마산의 신비로운 암자 '도솔암'이 한국관광공사 선정 1월의 가볼만한 곳에 선정됐다.

호남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달마산에 자리 잡은 도솔암은 기암괴석이 이어진 바위병풍의 꼭대기에 절묘하게 세워져 있으며, 땅끝 일대와 다도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하다.

추노, 각시탈 등 각종 드라마와 광고촬영 등의 배경이 된 곳으로, 드라마, 영화 등 장소 섭외 1순위다. 도솔암은 통일신라 말 의상대사가 창건한 암자로 명랑대첩 이후 왜구의 방화로 소멸됐다가 지난 2002년 월정사의 범조스님이 3일 동안 현몽을 꾸고 재건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의 비경 도솔암이 1월의 가볼만한 곳으로 선정된 것은 땅끝에서 새해의 힘찬 출발을 기원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도솔암을 비롯한 주변 관광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천연기념물 검독수리 방사·겨울철새 먹이주기 행사

#### 박철환 해남군수 등 100명 참석

해남군이 겨울철새 먹이주기 행사와 함께 천연기념물 제243호인 검독수리 방사 행사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철새 겨울나기 장소로 유명한 마산면 뜬섬 일원에서 겨울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박철환 해남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지역 환경단체 회원,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40kg들이 70가마의 벼를 철새먹이로 제공했다.

특히 독극물에 중독된 채 발견돼 해남군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두달동안 치료를 받은 검독수리 1마리도 이날 자연으로 방사됐다.

고천암호와 금호호, 영암호 등이 있는 해남지역은 따뜻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매년 수많은 철새가 찾아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최근 5년 내 최대 개체수인 30여만마리의 철새가 찾아온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행사가 열린 마산면 뜬섬은 영암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며, 해남군은 뜬섬에서 친환경 쌀 재배를 통해 농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생태지구로 조성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 KTX 5분거리
- 광주시청 10분거리
-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고등학교, 광주주대, 호남대 근거리

- 가격은 500만원대
- 풍부한 임대수요
- 우수한 교육환경
- 선착순 동, 호수지정

문의 062 383-6400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